

<2011년 4월 27일 수요일말씀>

**영적인 부활이다. 시대성의 부활이다. 정신적 부활이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본 문 요한복음 5장 19-29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뜨거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일말씀에 이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이 선생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이란, 육신의 부활이 아닌 정신과 영에 해당되는 부활이므로 영적인 부활에 대하여 배워야 저마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 먼저 알아라.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자가 없다. 내가 말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고 알고 행해야 부활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왕인지, 신하인지, 대통령인지, 공무원인지, 주인인지, 종인지, 회장인지, 회사원인지, 애인인지, 타인인지 먼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섭리사에도 각각 사명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먼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들어야 됩니다. 또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인지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의 효과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말이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 봐야 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선생이 누구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위대함과 가치를 모르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섭리사에 온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된 자들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로 말씀을 듣고서도 변화가 안 되고 늘 그 위치에서 삽니다.

말하는 자의 사명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이 시대 어느 급의 주님의 사명자인지 알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귀히 알고 자신이 알아서 행하게 됩니다. 모르고 10000번 설교를 듣느니, 알고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입니다. 선생도 여러분이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말씀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고 그 말씀에 대해 변론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대 통치자 중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여 육도 영도 변화되고 부활되고 살아납니다.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왔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막연히 ‘구세주’ 라고만 알지, 그 능력과 사랑과 행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늘과 땅에 무엇을 행하시는 자인지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만큼 주님은 큰 사명을 주십니다. 선생도 주님의 일을 맡길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선생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만큼 큰 사명을 줍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아도 서로에 대해 정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선생과 제자도, 같이 사는 식구들도, 같이 지내는 친구 사이도, 같이 있는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도 서로 정말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 간에 좋고 나쁜 장단점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 <영상1>

① 예수님 앞에서 변론하는 자들 /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구 자막>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19)

②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 /

그리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성구 자막>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8)

③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

<성구 자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24)

<성구 자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④ 구약 종 시대 - 신약 아들 시대 - 성약 신부 시대

<자막> 너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누구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고 내 말씀을 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21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 (요 5:19-21)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알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살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셔야 살리십니다. 살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살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만 살려 주십니다.

왜 살려 주십니까? 구원하시려고 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려 주십니다. 살리시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하셨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부활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부활인 것입니다. 육신이 행한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사망권에 죽어 있는데, 메시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회개

**하고 따르면 죽은 자가 생명권으로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선생도 예수님의 육체로 쓰여지기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명도 임무도 안 주고, 또 살려 주는 것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선생에게 주신 하늘의 주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같이 모으고 헤쳐야 됩니다. 선생이 원하는 대로 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처음에는 선생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점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고 그 사명을 빼앗고 다시는 사명을 안 줍니다.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도록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처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 점점 자기 주관대로 하는 자는 그 사명과 축복을 빼앗고 안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들어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2-23절을 읽겠습니다.**

<합독> (요 5:22-23)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하시며, 이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예수님이 보낸 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들이 심판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심판을 하시고, 보낸 자를 대한 대로 시대에 축복

을 주시거나 형벌을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말씀과 같이, 열왕기상 17장 말씀과 같이 하십니다. 성경의 수백 군데에 나온 것같이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로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의 칼에 가나안 7개 족속과 31명의 왕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삼손과 기드온 등 사사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때에 보내신 사사들로 심판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을 해하는 자들과 외적들과 그 시대 악한 자들을 모두 진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시대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어 그 시대 급에 해당되는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명자를 보내시어 그 시대 급에 해당되는 대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그가 기도하여 구원하고 죄를 대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민족, 종교, 지역 모두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낸 자를 측량줄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구원을 받고 아는 자들이 이를 증거하고 전하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필경은 사망으로 갑니다.

**다음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24-29절 말씀입니다.**

<합독> (요 5:24-29)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활’은 육신이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육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흑암 사탄 주관권으로 가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권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권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 영은 필경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고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이 살아나 생명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활이 육신 부활보다 수억 배 귀하고 중합니다. 죽은 시체를 살리면 기껏해야 남은 인생을 몇십 년 더 살지만, 사망권에 처해 있는 영을 살리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권으로 나오는 것이 부활이다. 이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래야 그 말을 듣고 행하여 너희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나 예수에게 와서 내 말을 믿고 행하여 부활된다. 육신의 삶도 부활되어 흑암권에서 보다 빛 가운데로 나와 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살아나 생명권의 삶을 살게 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허무를 벗어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영도 사망권 마귀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권에서 살게 되어 부활함으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고로 내 말을 듣고 부활하여라. 생명권으로 살아나라.” 하셨습니다.

## <영상2>

### ① <자막> 하나님의 종교 역사의 시작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자막과 설명> 종교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왔다가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종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삽화> 영상 초고 1쪽 위

<자막과 설명> 고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역사는 모두 아담 안에 죽은 자들로서 사망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종급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구약 사망권의 무덤에서 신약 생명권으로 살아나 아들급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 사람들

<자막과 설명>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악평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였습니다.

-<삽화> 영상 초고 1쪽 위

<자막과 설명> 고로 신약역사는 아들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약 사망권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성약역사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체로 오셔서 합당한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신부급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신약 사망권의 무덤에서 성약 생명권으로 살아나 신부급으로 부활했습니다.

② <삽화> 영상 초고 1쪽 아래

<자막과 설명>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사명자를 보내어 그 사명대로 그를 통해 구원하기도 하시고, 시대가 사명자를 대하는 행위대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③ <자막> 부활하여라! 살아나라!

-<삽화> 영상 초고 1-1쪽 아래

<자막과 설명> 육체, 곧 죽은 시체가 살아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적인 자들은 늘 육에 속하여 성경을 풀고 생각합니다.

-<삽화> 영상 초고 1-1쪽 위

<자막과 설명> ‘부활하여라. 살아나라.’는 말씀은 ‘영이 살아나라. 정신, 생각, 육신의 행위가 의롭게 살아나라.’는 말씀입니다.

④ ‘①번’ 삽화 전체가 다시 나오며

<자막과 예수님 말씀> 구시대 신약권, 보다 사망권에서 시대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나와라. 새 시대로 와서 내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 따르고 그를 보낸 나 예수를 믿으면 신부로서 부활하리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대로 구원을 시킵니다. 종은 종밖에 못 만들고, 신하는 신하밖에 못 만들고, 아들은 아들밖에 못 만듭니다. 애인은 애인을 만듭니다. 왕은 왕을 만듭니다. 왕은 자기 아들을 세워 왕으로 만듭니다. 선생도 선생이 계획하고 만들면 나 같은 사명자를 만듭니다.

사망권에서 부활되어 살아나지 않으면 1000년이 가도 그 주관권과 그 체계를 못 벗어납니다. 기성의 말씀으로는 10000년이 가도 기성 안의 부활 외에는 다른 차원의 부활을 못 합니다. 콩만으로 무엇을 제조하면 아무리 제조해도 콩은 역시 콩입니다. 돌포도나무끼리 접을 붙이면 아무리 접붙여도 항상 돌포도나무입니다.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여야 참포도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기성은 수만 번 변화해도 그 주관권 안의 변화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서 새로운 역사를 펴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1000년 신부 역사를 펴시는 것입니다. 재림역사부터 새 역사 신부급 역사입니다. 성약역사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신부급으로 부활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시대급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로서 흑암 사망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약역사는 종급이었습니다. 그 시대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열심’ 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의 부활을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어라. 시대의 부활을 하여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믿고 따르면 사망 종급에서 벗어나 아들급으로 부활되어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아들로 부활되어 살아난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딸로 왔다가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죽은 자가 되어 종이 되었다. 400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후아담으로 보내어 온전하게 하셨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아들로 부활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본론의 말씀입니다.

악평하고 불신하고 형식으로 살고 악하게 산 자들은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악평하고 불신하고 형식으로 살고 악하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새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아주 적었습니다. 실상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면 심판의 부활인 자들은 많은데 생명의 부활인 자들은 적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시대 신약권, 보다 사망권에서 시대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러 나와라. 새 시대로 와서 내가 시대 사망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부들로 부활하여라. 그 말을 듣고 따르고 그를 보낸 나 예수를 믿으면 신부로 부활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받을 자는 내게 오지 못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요 5:28-29).” 했습니다.

‘무덤’은 구시대를 말합니다. 구시대에서 나와 시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구시대 사망권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그 무덤은 구시대 신약권 2000년의 큰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인 시대였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각각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님이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듣지 않고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 <영상3>

① 돼지는 돼지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 모습

<자막과 설명> 돼지는 돼지밖에 못 낳고, 개는 개밖에 못 낳습니다.

좋은 종을 만들고, 왕은 왕을 만드는 모습

<자막과 설명> 좋은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종밖에 못 만듭니다.  
왕이 왕을 만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부로 가르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신랑은 신부를 만듭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선생도 사람을 만들면 선생 같은 자를 만듭니다.

정신과 영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살아 있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 / 이에 살아나는 모습

<자막과 설명> 산 자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야 시대의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② 콩끼리 제조해도 콩 성분의 것이 만들어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콩만으로 무엇을 제조하면 아무리 제조해도 콩은 역시 콩입니다.

돌포도나무끼리 접붙이면 돌포도나무인 모습

<자막과 설명> 돌포도나무끼리 접붙이면 아무리 접붙여도 돌포도만 엽니다.

돌포도나무 + 참포도나무 = 참포도나무

<자막과 설명>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여야 참포도나무가 되어 참포도를 엽니다.

구약 → 신약 → 성약 (영상 초고 3쪽 아래)

종        아들        신부

<자막과 설명> 구시대 구약권에서 구약 말씀만 들으며 구약인들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약권으로 나오지 않으면 종급 구약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 신약권에서 신약 말씀만 들으며 신약인들끼리 그 말씀을 전하며 열심히 한다 해도 성약권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녀급 신약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 성약권으로 나와 성약 말씀을 들어야 신부급 성약인이 됩니다.

③ <영상2>의 ‘①번’ 삽화에서 약간 변형 (글씨도 바뀜.)

구약 사망권 무덤 → 신약권 / 신약 사망권 무덤 → 성약권

시대 말씀                      시대 말씀

<성구 자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4-25절, 28-29절)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마음, 생각, 영이 보다 더 빛 가운데로 부활되고 살아납니다. 또 아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지 못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망권에 있는 자를 죽었다고 합니다. 육신이 살아 있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도 육도 흑암권 지옥 쪽 악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들을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범죄 하면 그 영이 다시 사망권으로 가게 되고, 그 육도 실상은 사망권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다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알고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밤 누구의 육신이 죽어서 살아나야 되기에 하는 말씀은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신앙’ 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죽어 그 영이 죽어 있거나, 혹은 그 육신이 살아 있으나 실상 사망권에 거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성인들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육신이 부활하는 말씀으로 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지도 않았는데 육신이 살아나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활’ 하면 꼭 육신만 생각합니다. 항상 육신이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나라 입장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루’ 라고 하면 인간은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가 우리의 1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주권을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나라 말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영을 보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 육도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고로 주님은 성경에 ‘회개하여 살아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해야 그 육도 사망권의 삶을 벗어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으로도 타락했으면 죽은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형벌 받고 살아나야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은 한 번 죽으면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히든지, 한 줌의 재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며 천법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수백 군데에 나옵니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육신을 다시 살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성경의 영웅 열사들도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 육신을 다시 살려 주지 않으시고 육은 그대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린다. 세상에서 그 육신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준하여 그 영을 어느 영계로 보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기에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 <영상4>

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 우상을 섬기는 자 /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죄를 지은 자 / 회개하지 않은 자 / 믿어도 형식으로 믿는 자 / 행함이 없는 자 / 이들의 영이 죽어 사망권에 있고, 그 육도 사망권에 거하는 모습 (하나하나 보여 주면서 자막)

<자막과 설명> 이들은 신앙이 죽음으로 그 영이 죽어서 사망권에 있는 자들로서 육신이 살아 있어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입니다.

<자막> 살아나라!

시대 말씀을 듣고 안 믿던 자가 믿는 모습 /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돌이키는 모습 /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는 모습 / 온전히 믿는 모습 / 행하는 모습 (그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모습)

<자막과 설명>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육도 사망권의 삶을 벗어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부활이며 정신적인 부활입니다.

<자막>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②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히고, 한 줌의 재가 된 모습

<자막과 설명> 인간의 육은 한 번 죽으면 시체가 되어 땅에 묻히든지, 한 줌의 재로 끝납니다. 이는 절대적인 천법입니다.

노아 - 아브라함 - 모세 - 여호수아 - 다윗 - 솔로몬

사도 바울 - 베드로 -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 사도 요한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모습)

<자막과 설명>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성경의 중심인물들과 영웅 열사들의 육신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육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만 살려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살아나라. 부활하라.’는 말은

육을 두고 말함이 아니라 영을 두고 말함이기 때문입니다.

③ 신약인들의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모습

그 영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신약인들의 육신도 살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영만 살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살아남을 받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약인들의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모습

그 영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모습

<자막과 설명> 성약인들이 육신이 죽어도 육신을 살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영만 살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살아남을 받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갑니다.

<자막과 예수님 말씀>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린다. 세상에서 그 육신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준하여 그 영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결정된다.

④ 영상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 출현하기 전 상태를 보여 준다.

설교자들은 위의 영상이 끝나자마자 아래의 다음 말씀(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을 하시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전하고, 바로 “할렐루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제 예수님께서서 깊은 말씀을 하시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4-1> <영상4> 마지막에 이어서 예수님 출현

## <예수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의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다. 이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 ‘영’ 이 사망권에 있지 않고 생명권으로 옮겨진다는 말이다. 너희 ‘육’ 도 사망권의 삶에서 생명권의 삶으로 부활된다는 말이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생명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어느 시대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로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영과 육은 사망권 세계에서 생명권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들로 살아나고, 신랑으로 온 나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신부로 살아나게 된다. 지금은 신랑 되는 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때이며, 내가 보낸 신부의 음성을 나로 인하여 듣는 때다.

<신약시대>는 아들로 부활시키는 때였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입장으로 ‘구약’ 이라는 무덤 속에 죽어 있었다. 내가 세상에 와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시대 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는 것을 두고,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살아 나오는 때가 이때다.” 라고 말했다.

그 시대에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왔고, 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한 자들은 자기 악한 행위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함이며,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는 말은 ‘심판받았다.’ 함이다.

성경에 ‘살아나라.’ 하는 부활의 말씀은 거의 다 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살아나라는 말씀이다. 또한 육신이 사망권의 삶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나 예수를 믿고 부활되라는 말씀이다.

너희는 더 부활되어라. 더 좋게 빛 가운데로 부활되어라. 더 완전히 부활되어 살아나라.

이 시대는 2000년 신약역사가 지나고 나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는 재림권 새 역사로서 성약역사다. 나 예수를 중심하여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사명자를 통해 성약역사를 시작한 때부터 1000년 동안 역사를 펴 나간다.

★ 이 역사로 온 너희들은 이 시대 성약의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약역사는 나의 재림의 뜻을 이루는 역사다. 고로 성약 말씀의 근본 핵은 ‘재림의 말씀’이며, 재림 말씀의 근본 핵은 ‘부활의 말씀’으로서 성약 말씀은 부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섭리사는 요한복음 5장의 부활 말씀을 중심하여 시대 신부의 말씀을 통하여 정신과 행실과 영을 변화시키고 아들에서 신부로 변화하는 시대성의 부활의 말씀을 외치며 지난 30년 동안 역사를 펴 왔다.

너희는 이 시대 나의 말씀을 듣고 신약 사망권에서 성약 생명권으로 나와서 신부의 신앙으로 부활된 자들이 되었다. 2000년 신약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 아들급 신앙에서 신부급 신앙으로 부활되고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로 온 너희들도 내가 보낸 자의 말을 듣고 나를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서 오늘까지 왔다.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 나의 신부로 부활된다. 어디서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급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를 이룬다. 고로 말씀의 내용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에 해당하는 변화를 이룬 자가 된다. 나 예수를 신랑으로 맞은 자, 곧 내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 보낸 자를 통해 신부급 말씀을 들어야 요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의 신부로 부활되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부활되지 않는 자와 살아나지 않는 자는 구시대 자녀급으로 살게 된

다. 이 시대 신부급의 말씀은 언제 듣든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너희가 늘 세상 법칙을 봐 오지 않았느냐. 돌포도나무는 새로운 참포도나무와 접붙이지 않으면 영원히 예전의 돌포도나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또한 옛날 살던 집을 새로 안 짓고 그냥 놔두면 너희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봐도 어렸을 때 보던 것과 똑같지 않더냐.

월명동도 그냥 두었으면 지금도 옛날 산골짜기 모습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너희 선생도 살아 있으나 다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졌을 것이다. 사망에서 살아나 부활되었기에 월명동도 오늘날 자연성전이 되었고, 너희 선생도 오늘날과 같이 된 것이다.

고로 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것이다. 정신과 행실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라는 것이다. 살아나지 않으면 기능을 못 하는 자로서 육신이 죽은 자와 똑같다. 기도하고 회개하여 살아난 자는 더욱 차원 높여 살아나라. 그러면 나와 대역사를 하게 된다.

새 역사 새 말씀이 그 시대 참포도나무 격이다. 이 시대 나의 온전한 재림의 말씀을 듣고 신부로 부활되어 살아나는 자가 나의 재림을 맞아 1000년사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나는 신랑으로 오는데 살아나지 못하여 자녀에 머무른다면 나 예수를 맞을 수 있겠느냐.

## <영상5>

① 죄로 죽어 구약 사망권에서 살고 있는 영과 육의 모습

<밀에 자막> 죄로 죽어 ‘구약 사망권’에서 살고 있는 영과 육

<자막과 예수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25)

위의 영상 (구약 사망권) → 신약 생명권

신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신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밀에 자막> 예수님이 신약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신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자막과 말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시대성의 부활이다.

② 신약 사망권 세계에 사는 영과 육의 모습

<밑에 자막> ‘신약 사망권’에 사는 영과 육

<자막과 말씀> 지금은 신랑 되는 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때이며, 내가 보낸 신부의 음성을 나로 인하여 듣는 때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성약 재림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성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밑에 자막> 성약 재림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성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1978년부터)

(전환) <자막과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29)

③ 구약 사망권에서 나오지 못한 영과 육 /

신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 한 화면에 비교

<구약 사망권 밑에 자막>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 심판받았다.

<신약 생명권 밑에 자막>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 = 구원받았다.

신약 사망권에서 나오지 못한 영과 육 /

성약 생명권으로 나온 영과 육 : 한 화면에 비교

<신약 사망권 밑에 자막>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 = 심판받았다.

<성약 생명권 밑에 자막>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 = 구원받았다.

④ 구약 4000년 - 신약 2000년 - 성약 1000년 (재림시대)

종급

아들급

신부급

<자막과 말씀> 이 시대는 2000년 신약역사가 지나고 나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는 재림권 새 역사로서 성약역사다.

섭리역사 사람들

<자막과 말씀> 이 역사로 온 너희들은 이 시대 성약 말씀을 듣고 나

예수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사는 자들이다.

시대 말씀 듣고 정신, 행실, 영이 부활하는 도표

<자막과 말씀> 시대 신부의 말씀으로 육적 부활을 이룬 자가 영적 부활을 이룬다. 이런 자만이 나의 재림을 맞는다./ 고로 성약 말씀의 근본 책은 ‘재림의 말씀’이요, 재림 말씀의 근본 책은 ‘부활의 말씀’이다.

선생님이 영적 부활, 정신과 행실의 부활 외치시는 모습

<자막과 말씀> 고로 섭리사는 요한복음 5장의 부활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외쳐 왔다.

⑤ 돌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 접붙이니 돌포도나무가 되는 모습

<자막과 말씀> 돌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와 접붙이지 않으면 돌포도나무 그대로다. 참포도나무와 접붙여야 참포도나무가 된다.

신약권 → 성약권

(아들급) 시대 말씀 (신부급)

<자막과 말씀> 새 역사 새 말씀이 그 시대 참포도나무 격이다.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 사망권을 벗어나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와 신부로 부활된다. 나의 시대 말씀을 듣고 살어나라. 나의 시대 말씀을 듣고 정신과 행실과 영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 세상은 지금 자기를 이끌어 줄 지도자를 찾고 있고, 자기의 멘토(Mentor : 지도자, 스승,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말)가 될 자를 찾는 시대다. 어느 누구나 자기를 이끌어 줄 확실한 멘토를 찾는다. 세상 사람들은 각종 책을 보고 각종 말을 들으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멘토로 삼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생들을 구원하는 나 예수가 최고의 멘토요, 영원한 멘토다.

나는 이미 50년 전부터 너희 선생에게 시대에 외칠 말씀을 가르쳤고, 30년 전부터 그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 그 말씀이 곧 너희 인생이

영생할 수 있는 시대의 멘토가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다.

세상은 소경이다. 시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도 육도 사망 지옥길을 벗어나 생명권에서 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나. 세상의 멘토는 세상에서 육만 잘되고 말게 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나와 내 아버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그래야 모두 사망에서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마치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같이 그 영이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고,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육의 행실과 함께 사망권에서 나와 살아나리라.

영이 사망에 처해 있는데 사망에 처한 말을 듣고서는 그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활되지 않는다. 살아나지 못한다. 너희도 겪고 아는 바이지만, 너희가 섬리사로 전도되어 오기 전에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었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든지, 기성에 있던 자들이었든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신부급으로는 부활되지 못했다. 이곳 신부의 역사로 와서 신부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에 시대 부활을 하게 된 것이다.

구약 400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전한 율법 말씀을 그 어떤 식으로 차원 높여 깊이 신령하게 들었어도 구약 주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직 신약권으로 와서 아들급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구약 주권을 벗어나 아들로 부활되어 나 예수의 신약 생명권에서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성약의 말씀, 곧 시대 나의 재림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구시대 신약 말씀 아래에 있으면 그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정한 법이다. 너희가 이 귀한 것을 알고 믿고 따르며 전해야 더욱 가치를 깨닫고, 나 예수와 함께 시대 최고 급의 주권인 신부급 성약역사에서 살게 된다.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다른 점이 없고, 기성과는 다른 뛰어난 점이 없다. 시대를 깨달아야 한다.

똑같이 나 예수를 믿어도 이 시대 새 역사로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부활된 자는 나의 신부가 되어 나를 신랑으로 삼고 믿고 살고, 이 시대 역사로 오지 못하고 구시대 사망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아들급 신앙으로 산다.

이 시대 섭리역사로 온 자들도 그러하다. 똑같이 나 예수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믿고 살아도 어떤 자는 나를 신앙의 신랑으로 대하여 신부급으로 살고, 어떤 자는 나를 신앙의 부모로만 대하여 자녀급으로 살지 않느냐. 자기의 부활이다. 부활되지 않으면 섭리사에 왔어도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살게 된다. 섭리사로 왔어도 차원 높여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더 높은 차원으로 부활되고 살아난다.

올해 대역사 중의 하나는 현재 자기 주관권에서 한 차원 더 높게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와 대역사를 하게 된다. 한 차원 더 부활하고 살아나려면 더 기도하고, 더 나 예수를 사랑하며, 더 몸부림치고, 더 말씀을 깊이 듣고 따라 순종하기 바란다.

오늘 전한 말씀은 부활절 기간뿐 아니라 수시로 전해 주어 너희도 더 새롭게 부활하고, 섭리사 생명들도 더 새롭게 부활하게 하자.

너희에게 “부활되어라. 살아나라.” 말씀한 주 예수다.

## <영상6>

①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 그리고 머릿속에 각자 멘토를 생각한다.

<자막과 설명> 지금 세상은 자기를 잘 이끌어 줄 멘토를 찾습니다.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는 모습 (실제 영상 사용)

<자막과 설명> 고로 각종 책을 보고 각종 강의를 들으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자기의 멘토를 찾습니다.

② 세상의 멘토들

(철학자, 학문가, 정치가, 사업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등)

<자막과 설명> 세상의 멘토는 육신의 한계를 면하지 못한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③ <자막> 최고의 멘토...

-예수님의 빛난 영인체의 모습이 먼저 흐릿하게 나오며

<자막과 설명> 최고의 멘토는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가치의 인생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는

-예수님 빛난 영인체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오며

<자막과 설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빛난 영인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이 나오며

<자막과 설명> 그를 멘토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영이 영원히 승리하고, 육도 죽을 때까지 보람 있게 살게 됩니다.

④ <자막> 영원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할 멘토 말씀...

대서점의 책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면서 '성경'으로 마무리

<자막과 설명> 이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멘토의 말씀입니다.

⑤ <자막> 이 시대 우리 영과 육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오직 예수님께만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님과 우리를 일체 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외치시는 영상이 나온다.

-왼쪽에는 선생님이 예수님과 함께 외치시는 삽화(영상 초고 6쪽)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다음 자막에 따른 영상이 나온다.

<자막1>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다. 그를 최고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영도 육도 잘되고 형통한다.

<자막2>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영을 위해 살아라.

<자막3> 죽은 자들아.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자막4> 시대 소경들아. 내 말을 듣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재난도 받지 않는다. 시대의 평화가 깨지고 민족과

이 시대가 불행으로 돌아가니 모두 회개하여라.

⑥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따랐던 자들

<자막과 말씀> 구약 400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전한 율법 말씀을 아무리 차원 높여 들었어도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직 신약권으로 와서 아들급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 아들로 부활되어 나 예수의 신약 생명권에서 살게 되었다.

신약권에 있는 자들

<자막과 말씀> 이와 같이 이 시대 성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구시대 신약 말씀 아래에 있으면 구시대 사망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나 예수가 정한 법이다.

<성구 자막>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29)

<자막과 예수님 말씀 광! 마무리> 재림시대 성약 말씀을 들어야 구시대 무덤에서 나와 시대 최고의 주관권인 신부급 성약역사에서 살게 된다. 이를 깨달아야 역사의 가치를 알게 된다.

⑦ 섭리사 사람들 (각 나라의 모습 : 한 화면에 다 보여 주기)

<자막과 말씀> 이 시대 섭리역사로 온 자들아. 너희는 신부 역사의 주관권으로 왔다. 이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더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부활하여라.

⑧ 예수님 인사 “샬롬!”